



미래의 가장 좋은 점은
하루씩 온다는 것이다.

- Abraham Lincoln -



39177 경북구미시 대학로 61
T_054.478.7114 / F_054.478.7100
<http://www.kumoh.ac.kr>



DECEMBER 2019 / VOL. 186

금오공대 소식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Letter

발행일 2019. 12. 15.

발행인 이상철 편집인 정인희 편집실무 오유진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054) 478-7078

주 소 경북구미시 대학로 61

디자인 애드게이트 054) 456-3434

CONTENTS

Focus

- 04 2019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
2019KIT Engineering Fair
2019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산학협력 우수기관 선정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제7회 KIT 캠퍼스 사진공모전 입상작

Culture

- 28 손에 잡히는 클래식 강연
10월 신미식 작가 사진전
11월 강태웅 작가 초대전
12월 김해동 작가 초대전
김수영 작가 북 콘서트
지역시민 위한 금오사이언스 영화제

People 교수

- 14 박재우 (사)경북산학융합본부장
신임교수 소개
이현수 교수,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올해의 학술상'
김우석 교수,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올해의 논문상'

KIT News

- 34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업무협약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하반기 융합교육 활성화 위한 토론회
2019선주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사랑의 김장 나눔

People 직원

- 19 KIT 칭찬 릴레이
직원 역량강화 교육

KIT Love

- 37 후원의 집 소개
발전기금 약정 및 기탁 명단
기탁자에 대한 예우
기부 약정서
발전기금 모금 안내

People 학생

- 22 금오공대 산악부
2019대한민국 인재상 2명 수상
2019대학창의발명대회 8개 부문, 7개 팀 수상

26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 개최

우리 대학·국방부 등 주최, 산학협력단 주관
“국방 분야 ICT 기술 성과공유”



‘2019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박람회’ 개회식이 10월 31일 구미코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이상철 총장을 비롯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왕정홍 방위 사업청장이 참석했으며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백승주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방 ICT 산업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방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을 한자리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북, 스마트 첨단도시 구미,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우리 대학, 국방부, 경상북도, 구미시, 경운대 LINC+사업단이 주최하고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했으며, 산·학·연·관·군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 ICT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박람회를 주최한 이상철 총장은 개회사에서 “국방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스마트 국방 ICT 분야를 선도하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시민들도 다양한 신기술 체험을 통해 ICT 산업의 발전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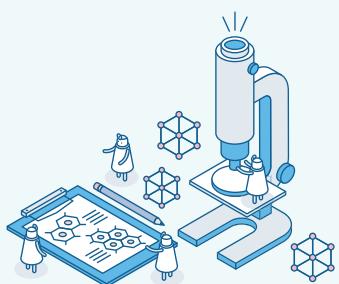
2019 KIT Engineering Fair 개최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국책사업 지원 성과
일반 캡스톤 프로젝트 등 총 154개 작품 선보여



우리 대학이 11월 14일부터 양일간 교내 체육관에서 ‘2019 KIT Engineering Fair’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주백석)가 주관한 ‘2019 엔지니어링 페어’에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완성된 총 154개의 학생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개막식에는 이상철 총장을 비롯해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 윤정목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장, 박재우 (사)경북산학융합본부원장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작품을 격려했다.

“금오공대가 자랑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의 작은 결실이자,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커나가는 과정이 담긴 엔지니어링 페어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엔지니어링 페어는 작품 전시와 사업화 컨설팅 등의 풍성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일반 캡스톤 프로젝트 부문에는 ‘미세먼지 차단 블라인드 설계 및 제작’ 등 110개 작품, 기업연계프로젝트 부문에는 ‘역 푸아송 구조를 활용한 협소공간 극복 이동로봇’ 등 29개 작품이 전시됐으며, 그 밖에도 융합형, 사회공헌 글로벌 부문 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들이 선보였다.

이상철 총장은 “금오공대가 자랑하는 현장밀착형 교육의 작은 결실이자,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커나가는 과정이 담긴 엔지니어링 페어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학의 전통이 되어가는 이 행사가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KIT 엔지니어링 페어는 캡스톤 프로젝트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적 종합 설계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19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

‘산학협력 부문 우수대학’ 선정



우리 대학 포함 총 7개 부문 19개교 선정

우리 대학이 10월 23일 한국대학신문 창간 31주년을 맞아 열린 시상식에서 산학 협력 부문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은 일반대(산업대 포함) 12개교, 전문대 6개교, 사이버대 1개교 등 총 19개교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대학신문은 대학의 경영 성과와 대학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대학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부터 대학대상을 제정해 매년 산학협력, 교육혁신, 교육역량, 교육특성화, 국제역량, 지역협력, 취업역량 부문 등에서 우수대학을 선정해왔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우수기관 선정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11월 7일 열린 제19회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에서 산학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우리 대학은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1,350여 개 지역 중소기업체와 연구미을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등 다수의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1,300여 건의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기술 및 시제품 개발, 아이디어 상품화, 자적재산권 확보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구미시, 칠곡군)와 산학관 협력지원 MOU를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확장 및 협력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과기부총리상(2004), 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2012),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2018)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산학협력단 김송미 주무관이 경북지역산학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학연경북지역협의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는 ‘2019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 성과 전시 및 중소기업 정보교류의 장으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동양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2018년 대비 13% 감축, 환경부장관 표창
시설안전과 김기호 팀장, 연구실 안전 유공자 선정

우리 대학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 실적 우수기관’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2018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각 기관별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우리 대학은 2018년 감축목표 26% 대비 35.9%를 달성하며 전년대비 13%를 감축하는 성과를 냈았다.

시상식은 10월 30일 서울 KW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은 정부의 에너지 · 자원 자립 정책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해 스캠퍼스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산학협력관지역발전장치 설치 △태양광 및 하이브리드(풍력 +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공공요금을 절감했다. 그 밖에도 LED 조명 보급률

100% 조기 달성으로 기존 에너지 소비를 1/3로 줄이고, 강의실, 실험실, 복도, 화장실 등 소등되지 않고 방치되는 조명에 인체 감지센서를 설치, 자동 조명 제어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였다.

한편, 같은 날 열린 ‘2019년도 연구실 안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김기호 시설안전과 안전팀장이 개인부문 유공자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7회 KIT 캠퍼스 사진공모전 입상작

교내 구성원, 지역 시민 등 총 106작품 응모, 21작품 입상



대상_ 벚꽃 핀 정문(전하영)

10월 30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7회 KIT 캠퍼스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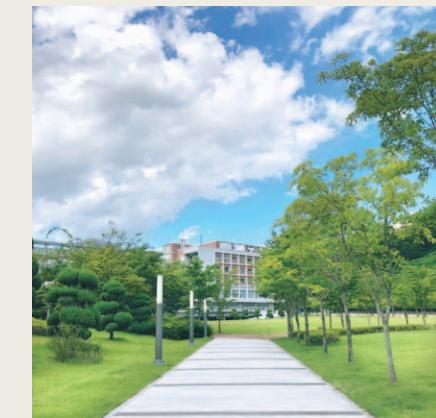
아름다운 대학 풍경과 변화하는 대학의 모습을 발굴 및 보존하기 위한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총 106점의 작품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대상 1작품, 특별상 1작품, 최우수상 3작품, 우수상 6작품, 장려상 10작품 등 총 21작품이 당선됐다. 대상은 '벚꽃 핀 정문'이라는 제목의 컴퓨터공학과 전하영 학생의 작품이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부터 캠퍼스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올해 공모전 작품 주제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과 각종 동아리 및 교내행사의 활동모습, 학교 상징물 및 건축물이 포함된 경관사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류재명 광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카메라 렌즈를 기증해 대학 사랑에 동참했다.

우수상_ 꽃길(오은서)



특별상_ 노을지는 금오공대(김성훈)



우수상_ 푸르른 여름의 금오공대(김수빈)



우수상_ 진리 창조 정직 그리고.. 청렴(양동민)



장려상_ 금오자에 담긴 학교(권나희)

최우수상_ 기울밤 금오공과대학교 정문 모습(조정민)



최우수상_ 정직, 창조, 진리(조성일)





최우수상_노을(최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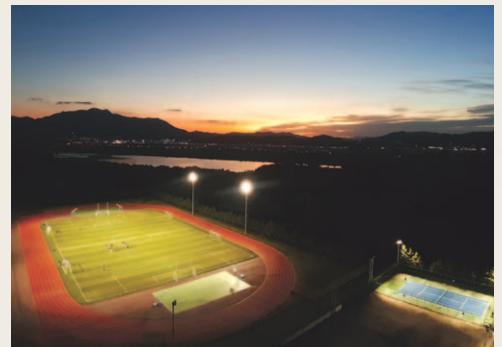
우수상_너에게로 가는길(최효정)



장려상_금오를비추다(김도환)



장려상_하늘도태양도반한금오!(김상진)



우수상_노을이지는운동장(김명준)



장려상_축구를향한열정(백승원)



장려상_길(김지혁)



장려상_디지털관이보는학교의모습(오민주)



장려상_사랑이꽃피는나무(이남희)



장려상_전지적개미시점(김주은)



장려상_빛나는이곳(김준성)



장려상_근간(정운)

우수상_벚꽃과체육관(심순희)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기를...

(사) 경북산학융합본부

박재우

전자공학부 교수

올해 9월 박재우 전자공학부 교수가 (사) 경북산학융합본부 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박재우 원장을 만나 (사) 경북산학융합본부와 대학의 역할, 그리고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과 경북산학융합본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박재우 (사) 경북산학융합본부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금오공대에 부임하여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2005년 구미전자산업진흥원 초대원장으로서 지역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구미전자산업진흥원과 구미전자기술연구소가 통합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초대원장을 역임했다.

신평동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사) 경북산학융합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구미시와 지역 4개 대학(금오공대·경운대·구미대·영진전문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학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실무형 현장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무거운 임무를 맡게 되어 기쁘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그동안의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융합본부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산업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산학협력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북산학융합본부가 최적화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재우 원장은 산학협력 주체들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축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학은 기업에 디끼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대학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호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자체도 정책적 제도 및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을 도와야 합니다. 현재 산학협력은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내용의 중복성이 심하고 추진 주체간 다소 과다한 경쟁으로 유기적 연결고리가 약하며 성과창출이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산학융합본부가 이를 주체 간의 가교가되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성과를 내면 이는 자연스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연결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경북산학융합본부가 그 중심에서 중추 기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재우 원장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초대원장을 역임하며, 초창기 인적 구성부터 기반사업 시행, R&D 인증 평가 시행, 창업 보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7개년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산학융합본부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 분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북산학융합촉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지역혁신프로젝트, 경북산학융합미니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고, 차년도에는 경북지역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경북산학융합본부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경북산학융합본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산학융합은 결국 각자의 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을 실제 기업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용 과정은 바로 학생들 봇입니다. 학생들이 산학협력의 중요한 주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졸업 후 기업의 일원이 되어 적용하며 그 일원으로서 같이 성장할 때 진정한 산학협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산학협력이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산학협력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40여 년간 교육자로서 변화된 학교, 학생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끼는 마음만큼 당부도 잊지 않는다.

“4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학교의 외형적 모습도, 그리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학생들은 실무적인 능력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국가 정책의 일환인 것도 있었지만 실기나 실습이 많았던 만큼 그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꿈을 이 학교에서 가졌고, 실제로 이루어 나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지금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은유적 표현으로 손을 많이 쓰라고 당부합니다.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손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트레이닝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숙련되어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나아가면 그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9년 2학기
신임교수 소개**

양희철 / 박정환 / 강창호 / 노성진

**전자공학부
신임교수**

양희철

●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 교수님들,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임하고 벌써 한 학기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업 준비 등으로 바쁜 첫 학기를 보냈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주어서 소소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임하고 첫 학기 수업, 첫 계절의 수업, 첫 1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새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저는 전자공학부 세부 전공 가운데 무선 통신을 전공했습니다. 그중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고, 최근에는 IoT(Internet of Things) 네트워크에서의 다중 접속 기술과 간섭 관리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앞으로 모든 기기가 서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무선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는 말에 감명을 받아 무선 충전, 무선 통신 등과 관련된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통신 기술의 매력을 느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무선 통신 기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크기가 커지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증가하여 이를 나누어 처리하는 분산 네트워크 또는 분산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산 시스템을 원활히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루는 여러 기기 또는 센서 간의 데이터 송/수신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선 통신 기술을 확장하여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먼저 금오공대 신임교수가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와 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친근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각 시대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미래에는 휘어지고 늘어나는 전자 시스템 기술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미래 헬스 케어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연한 전자 시스템 연구를 위해서는 고성능 전자소자를 휘어지는 기판 위에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전자 디바이스 제작 공정들과는 달리, 빛을 이용한 열처리 기술을 응용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영역에만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유연기판의 손상 없이 고성능 전자 소재들을 휘어지는 필름 위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Light-Material Interaction(빛-물질 상호작용) 기술에 깊이 매료됐고, 이를 통해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의 열/화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고성능 전자소재 및 소자를 구현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레이저 및 플래시 광을 이용한 웨어러블 전자소자 및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한 소재합성, 소자제작, 3D 프린팅 기술부터 시작해 다양한 에너지/센서/디스플레이/바이오소자 등의 성능 향상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작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인간-로봇 기술, 바이오 메디컬 및 인공지능 시스템을 실현해 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혁적, 창의적 연구의 초기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이 학문의 기본 개념들을 직관적인 과학지식으로부터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문 및 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저의 현재 삶의 목표는, 저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 및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돋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계설계공학부
신임교수****박정환****기계시스템공학과
신임교수****강창호****●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금오공대 교수로 임용되어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는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교수님들을 도와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중·고등학교 시절 SF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주선과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관심이 점차 구체화되어 기계항공 우주공학과로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또 시스템 제어분야에 대한 호기심으로 전자과의 통신이론, 디지털 신호처리와 디지털 제어 분야도 심도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다양한 특성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항공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스템 제어분야와 관련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GPS 음역 구간에서의 항법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 각종 목표물 추적 및 데이터 융합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대학교 부설연구소(공학기술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임용되어 국제 산학연협력, 중소·중견업체와 산학협력을 진행하였고 딥러닝, 강화학습기반 경로 최적화, 설명 가능한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구조를 중심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적 지식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학생 면담방식과 같은 상담 형식을 따르지만 학습, 인성교육, 취업상담을 개인화에 맞춰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공학 이론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초지능화한 ICT가 물고을 변화 규모와 범위, 복잡성, 속도 등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 예상하고, 여러 분야에서 ICT를 효과적으로 융합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원천기술과 자율무인이동체의 제어 및 정밀항법 기술, 강화학습기반의 최적경로 결정을 주제로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자문 및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국가기관에서 제안하는 과제에 공모하여 과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임교수로서의 소감

2019년 기술학기부터 토목공학과에서 수공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금오공대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가르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외국의 대학교에서 몇 년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한국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와서 기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토목공학, 영어로 Civil Engineering은 군사공학(military engineering)에 대비되는 의미로 탄생한, 역사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공학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자원, 도로, 교량, 구조, 지반 등 공공부문의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학문으로서 그 가운데 저의 세부전공인 수문학(hydrology)은 지구 표면의 대기, 흙, 하천, 지하대수층 등에서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물과 인간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어떤 계기로 수문학을 선택하겠다고 보다는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알아보려고 계속 공부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저는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금오공대 학생들의 대부분은 21세기 후반기를 살게 되고, 아마 몇몇은 22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기후변화는 지금 바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지속성을 위협하게 될 문제입니다.

저는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 문제에 대한 분석 방법 및 해결책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문/수리학, 지리학, 기상학, 해양학, 도시공학, 사회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와 함께 미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목공학과
신임교수****노성진**

산업공학부 이현수 교수,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9 올해의 학술상' 수상

지능시스템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

산업공학부 이현수 교수가 '2019년 올해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현수 교수는 최신 인공지능 기법 및 비선형 데이터 최적화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며 국내 지능시스템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및 디지털 트윈 전문가로서 최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올 한해에만 5편의 SCI(E) 논문을 포함, 총 9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전력기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IIG 시스템 등과 기술개발 및 자문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신학연협력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열린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퍼지, 신경회로망, 딥러닝 분야의 지능시스템과 정보과학



을 연구 및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능시스템학회는 내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학회로서 70여개 기관과 3,000여 명이 단체 및 일반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1일부터 양일간 해운대 센텀호텔 등에서 열린 2019년도 (사)한국지능시스템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 대회에서 열렸다.

건축학부 김우석 교수,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올해의 논문상' 수상

SCI급 논문 5편 포함 총 10편 국내·외 학술지 게재
복합신소재 구조 적용에 대한 학술적 성과 인정

건축학부 김우석 교수가 (사)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2019년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섬유조합에 따른 섬유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로 건설 분야의 복합신소재 구조 적용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대표저자인 김우석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논문은 '셀프힐링(자기치유) 형 토목·건축용 하이브리드 초고강도 보수·보강 섬유제품 및 시공법 개발' 연구에 대한 것으로 산업통산자원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토목공학과 한상묵 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이다.

이 논문을 비롯해 김우석 교수 연구팀은 올 한해 10편(SCI급 논문 5편 포함)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다.

한편,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친환경신소재 건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공학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소재인 건설 분야 복합신소재



(ACM :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vens센터에서 진행된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정기총회 및 10주년 기념식에서 열렸다.

칭찬 릴레이!

정형진 선생님_학생상담센터 근무

▶ 추천사유

정형진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 추천인

곽계은 선생님(생활관 근무)



이준범 선생님_종합학사행정실 기계설계공학과 근무

▶ 추천사유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교수님과 학생들의 교육지원에 적극적인 이준범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 추천인

정형진 선생님(학생상담센터 근무)



진기정 선생님_학생처 학생지원팀 근무

▶ 추천사유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모습으로 항상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기정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 추천인

이준범 선생님(종합학사행정실 기계설계공학과 근무)



정진호 팀장님_국제교류교육원 근무

▶ 추천사유

우리 대학의 동문으로서 항상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정진호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 추천인

진기정 선생님(학생처 학생지원팀 근무)



우리 대학의 특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직무 역량 및 교양 위한 ‘금오역량 아카데미’ 매달 시행

우리 대학은 매월 소속 직원 교육을 위해 ‘금오역량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직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오역량 아카데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이뤄지며, 월별 교육을 시행한다.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겸해 매달 진행되고 있는 클래식 허물기와 같은 음악 해설 공연은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예술적 감동은 물론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공연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9월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변화하는 대학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봉래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대학의 환경변화와 공직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금오공대는 매월 실시하는 주제별 특강을 통해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주제별 특강은 다양한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개인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장려한다. 지역 내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배식 봉사, 영육아원의 돌봄 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경북대 대구교대와 함께 미안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처럼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대학에 특화된 역량개발지원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도 있다. 2018년에는 한국능률협회의 심리상담사 1급 취득 과정을 진행해 89명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2019년에는 커리어컨설팅트 자격 취득 과정이 실시됐다. 직원의 능동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지원도 호응이 좋다. 대학직원의 감수성 훈련과 독서학습 장려를 위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서적을 활용한 금오독서통신과 연구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 등을 지원하는 직무능력개발 지원은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오공대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대학과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직원 개인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정시영 사무국장은 “매번 실시하는 직원 교육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직원과 대학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영 사무국장



조봉래 인천재능대 교수 초청 특강

금오공대 산악부, 등반객 구조로 모범상 표창 받아

34년 전통의 명문 산악부로 성장
감사편지로 숨은 선행 알려져

지난 9월 총장실로 한 통의 감사편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금오공대 산악부 학생들이 등반 도
중 다친 시민을 구조해 주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한길(건축학부·3), 최광일(전자공학부·4), 김승환(산업공학부·2), 장
성동(신소재공학부·3), 김수현(기계시스템공학과·3), 정보균(메디컬
IT융합공학과·1) 학생은 대구·경북 학생 산악연맹 소속 학생들과 함께 하
게 장기 훈련을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10일간의 설악산 등반을 마치고 하산
하던 중이었다. 당시 우리 대학 산악부 부장 이한길 학생과 김승환 학생이
선두로 하산하다가 발과 다리 등의 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시
민 김재찬(64세·인천 거주)씨를 발견했다. 이한길 학생은 의료장비를 지
참하고 있던 장성동 학생과 연맹 대원들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 미담은 김재찬 씨가 산학연맹 소속 학생들이 속한 대학 총장실로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편지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끄약볕 아래에
서 고통받고 있던 중 기적과도 같이 금오공대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그들이 취해 준 응급조치와 구급약으로 빨리 회복하게 되어 무사히 귀환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산악부 등정 내역

- 1993년 남미 최고봉 이콩카파 (6,692m) 2회 등정
- 2003년 히말라야 로체 (8,516m), 미르고원 레난봉 (7,139m) 등정
- 2008년 히말라야 초오유 (8,201m) 등정
- 2010년 중국 무즈타그이타 (7,546m) 등정_개교 30주년 기념 등반

- 2013년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 (3,000m) 등정
- 2015년 북미 최고봉 데널리 (6,194m) 등정
- 2017년 오지답사대 주최 키르기스스탄 우치텔피크 (4,527m) 등정
- 한상우 (산악부 99학번) 극지연구소 남극 장보고기지 대원 활동

나에게 산악부는 ○○다.

김수현 (기계시스템공학과 14학번)

나에게 산악부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다. 힘든 순간이나 어려운 구간을 같
이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기
때문이다.

최광일 (전자공학부 14학번)

나에게 산악부는 여행이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김승환 (산업공학부 15학번)

나에게 산악부는 의리다. 서로의 생명을 지
탱하면서 등반하기 때문이다.

정보균 (기계시스템공학과 19학번)

나에게 산악부는 강물이다. 언제나 올곧게
나를 이끌어준다.

윤재빈 (메디컬IT융합공학과 19학번)

나에게 산악부는 유산이다. 선배들의 경험이¹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그 위에 쌓은 우리의
경험을 물려주기 때문이다.

이한길 학생은 “연맹 소속 학생들이 함께 있었기에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
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잖이 당황하고 힘드
셨을 시민분이 저희들의 작은 행동을 칭찬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산악부 소속 학생들의 소식을 접하고, 훌륭한 시민의식
을 바탕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칭찬하기 위해 모범상(특별상)
을 수여했다.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86년 창립한 금오공대 산악부
는 현재 막내 기수인 34기를 포함해 총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등산을
포함하여 인공등반, 프리클라이밍, 멀티피처클라이밍, 아이스크라이밍,
알파인 등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등반활동을 한다.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와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듭법, 장비사
용법, 하강법 등을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다. 하계와 동계 방학에는 설악
산 등에서 장기훈련을 진행한다.

2013년 대구·경북 학생 산악연맹 주최 ‘제55회 전국 60km 극복 등반대
회’ 여자 대학부 우승(1위)을 비롯해 2013년 구미시 주최 ‘제29회 금오
산악회 및 제3회 새마을기 금오산 등반대회’ 남자부 1위, 2016년 제49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명문 산악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인재상' 2명 수상

김민수, 오신일 씨 주인공,
올해까지 총 9명 배출
2014년부터 '6년 연속' 수상 패거

우리 대학이 '2019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2명을 배출했다. 김민수(29·기계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신동원), 오신일(28·기계공학과 석사졸업·지도교수 박상희) 씨가 그 주인공으로 우리 대학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수상이라는 패거를 거뒀다.



김민수

"사회적 기업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로봇공학도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오신일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특히 감사드리며, 다양한 발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성장 주축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청년일반인 두 부문으로 나눠 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한다.

현재 우리 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대학원에서 로봇 인공 의수를 연구하고 있는 김민수 씨는 장애인들의 자립 환경 구축을 위한 스탠딩형 휠체어를 개발한 청년 창업가다. 지난 6년간 이어온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왔으며, 현재 창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D프린팅경진대회 산업부장관상, 과기부장관상 등을 비롯해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8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신체보조기구 관련 특허를 2건 출원한 바 있다.

오신일 씨는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수의 발명·창의 대회에서 수상하며 발명 부문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오신일 씨가 개발한 '자전거 신발 고정장치'는 정지할 때 자주 발생되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127개 대학의 4,284건의 발명품이 참가한 2015년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2등(국무총리 상수상)을 차지했다. 전자석을 이용해 주행 시 부착력은 강화하고 정지 시에는 폐달과 발의 부착력을 없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 밖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연구재단의 다양한 연구과제에도 참여했으며, 3건의 특허 출원과 대한기계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민수 씨는 "사회적 기업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로봇공학도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고, 오신일 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특히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발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2012년 하재상(전자공학부 졸업), 2014년 최현진(소재디자인 공학과 졸업), 2015년 이상옥(기계시스템공학과 졸업), 2016년 강병규(전자공학부 졸업)·정동근(기계공학과 졸업), 2017년 신나라(산업공학부 졸업), 2018년 이정화(기계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졸업)씨에 이어 올해 두 명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으며, 총 9명의 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은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2019 대학창의발명대회 '8개 부문, 7개 팀 수상'

망치로 변형이 가능한 차량내부 손잡이, 과기부장관상

5년 연속 수상자 배출

우리 대학 학생들이 '2019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 8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9대학창의발명대회는 대학(원)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허출원 및 사업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대회다. 올해는 전국 123개 대학에서 5,087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돼, 24개 대학 38개 팀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중교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상탈출 도구를 승용차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고안하게 됐다. 신뢰성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안전한 장비를 만들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특허청장상을 비롯해 대한전기학회장상,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이루팩공모기업상을 받았다. 또한 금오공대 발명동아리인 거북선신화가 최다신청(340건) 및 최다수상(4건) 발명동아리상을 수상하며, 총 8개 부문에서 7개 팀이 수상하는 고른 성적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최은석(기계시스템공학과 3년), 박온유(기계공학과 1년) 학생의 '망치로 변형이 가능한 차량내부손잡이'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차량 사고나 침수 시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해 고안됐다. 차량 내부 모든 좌석의 창문 위에 설치된 손잡이를 비상용 망치 모양으로 바꾸어 접근성이 쉽게 하고, 안전벨트 커터기능을 포함해 보다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은석 학생은 "대중교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상탈출 도구를 승용차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고안하게 됐다"며, "신뢰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안전한 장비를 만들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 성적을 거뒀으며, 2017, 2016, 2015년에도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수상자를 배출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6일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수상내역

	상격	수상자명단	발명 아이디어 명칭
최우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최은석 (기계시스템공학과 · 3) 박온유 (기계공학과 · 1)	망치로 변형이 가능한 차량내부손잡이
	특허청장상	김경민 (기계공학과 · 4) 이상재 (기계공학과 · 4) 한승우 (기계공학과 · 4)	제어 정밀 다공성 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
장려상	대한전기학회장상	안경진 (기계공학과 · 2) 김상현 (산업공학부 · 4) 곽도렬 (기계시스템공학과 · 4)	다중체결 구명조끼
	생화학분자생물학회장상	곽도렬 (기계시스템공학과 · 4) 김상현 (산업공학부 · 4) 미재영 (신소재공학부 · 1)	접이식 의자
	중소기업중앙회장상	김진민 (기계시스템공학과 · 3) 정화은 (메디컬IT융합공학과 · 1)	탄성부를 포함하는 웃걸이
	이루팩공모기업상	노도아 (산업공학부 · 3) 김태은 (산업공학부 · 3) 양동민 (산업공학부 · 3)	이종 내용물 혼합용기
최다수상발명동아리		거북선신화	
최다신청발명동아리		(회장 권대익 기계공학과 · 2)	





지역사회 문화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한해 다양한 클래식 강연이 개최됐다.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하는 클래식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술적 감동을 받았다.

손에 잡히는 클래식 강연

“한번의 직접적인 경험은 100번의 간접 경험보다 마음속에 오래남을 거예요.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이 작은 치유의 시간으로 즐거움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클래식 강연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시행되어 문화 예술적 복합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공학도 육성과 지역 사회 문화 기여를 통해 바람직한 대학 문화 창출에 기여했다.

지난 11월 28일 ‘11월 클래식 강연’은 클래식 허물기 6번째 시간이었다. 친근한 클래식 음악과 해설을 통해 관객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곳곳에서 흘러넘치는 웃음이 1시간 여 동안 강연이 열렸던 소극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 1년간 ‘손에 잡히는 클래식’ 강연을 이끌어 온 이선경 음악코치(아르떼기획 대표)에게 우리 대학의 클래식 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관객들의 호응도 좋아서 1시간의 강연이 언제나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귀울여 음악에 집중하는 순간, 일상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괴로움을 잊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연을 진행하는데 다행히도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다보면 그러한 확신이 들어요”



이선경 대표는 관객들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 편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강연을 들었으면 한다. 다음 편이 더 궁금하여 다시 강연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강연을 맡게 되면서 했던 바람이었다.

“다행히도 회를 거듭 할수록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가수다’와 같은 프로그램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 번의 직접적인 경험은 100번의 간접 경험보다 마음속에 오래 남을 거예요. 지난 1년간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이 작은 치유의 시간으로, 즐거움의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선경



- 경북대 미생물학과 졸업
- 대구가톨릭대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수석 졸업 (사사 김은숙)
- 그레고리오 성가 및 성음악과정 이수 (사사 박대종)
- 일본 히로시마 플라워 페스티벌 한국 대표 참가
- 현 프린치스카눔 발성마스터클래스 지도교수, 명음가곡회 음악코치, 운경시지뮤직아카데미 등에서 음악 전문 해설가로 활동 중, 아르떼기획 대표



10월 신미식 작가 사진전

작품 <겨울한옥> 등 30여 점 전시
국내에서 작업한 작품들 첫 공개
전시기간 : 2019. 10. 11. ~ 10. 31.

아프리카전문 사진작가로 알려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국내에서 작업한 작품들을 처음 선보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옥의 여러 모습을 지방 곳곳을 다니며 카메라에 담았다.

신미식 작가는 “낡아서 옛 풍치만 간직하고 있는 한옥들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던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선과 깊이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기 때문”이라며, “낡은 기와 한 장에 피어난 기와 꽃을 렌즈에 담으며 느낀 세월에 대한 경외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프리카 관련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온 신 작가는 탄자니아(2014), 에티오피아 가족사진(2015), 마다가스카르(2016~2017), 에티오피아_10년의 기록(2018) 등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저서로 『머문자리』, 『탄자니아』 등 30여 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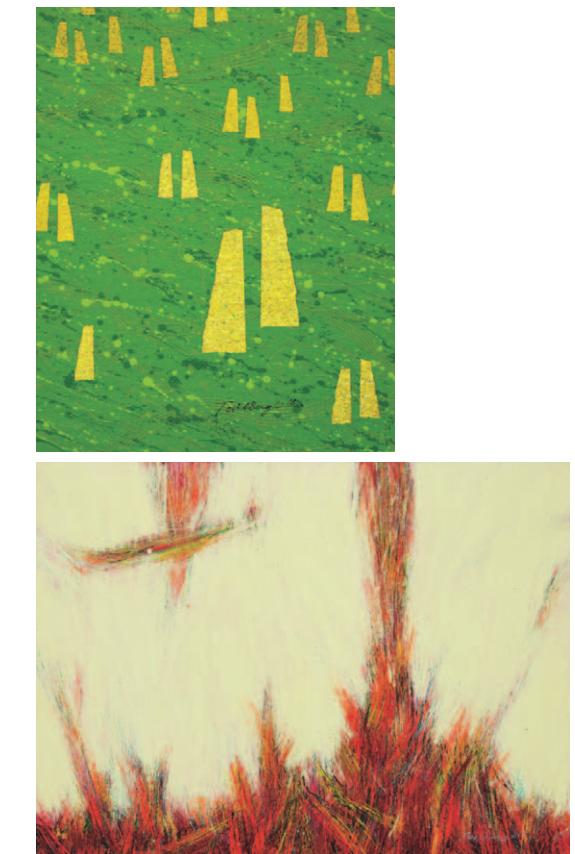


11월 강태웅 작가 초대전

<Movement> 연작 40여 점 전시
‘자연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 메시지 전해
전시기간 : 2019. 11. 05. ~ 11. 30.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오공대갤러리를 찾은 강태웅 작가는 이번 작품들에서 ‘자연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작가의 시도는, 때로는 입체 작품으로 때로는 다양한 형식의 평면 작품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일관된 주제는 자연과의 소통이다.

강태웅 작가는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자유와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학과와 동대학원,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 브루스버그 대학 (Bloomsburg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원을 졸업한 강작가는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청작미술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2월 김해동 작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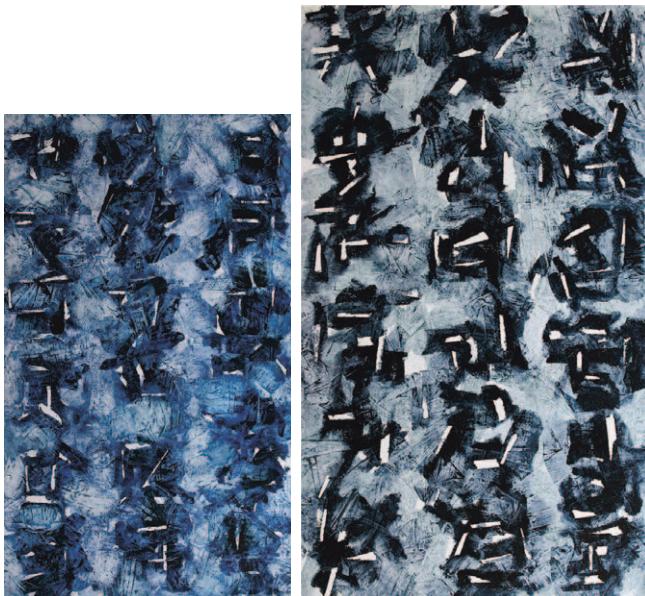
‘블루진으로부터-데자뷰시리즈19’ 주제

평면작품과 공간적 세계 만남 추구

전시기간 : 2019. 12. 04. ~ 12. 31.

김해동 작가는 젊음을 상징하는 의류인 블루진을 매개로 한자어와 의 조형성을 결합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였다. 작품의 모티브인 한자체의 상형문자들을 매개로 평면인 작품에서 공간적 세계와의 만남을 추구했으며, 작품에 나타나는 블루진의 형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뒤엉킨 몸짓을 나타내며 나이아가 현대인의 다이적인 욕망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작가는 국내·외 4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한·중·일 교류전 (2015~2019), 제5회 도쿄 국제미술제(2017) 등 350여 회가 넘는 국제 초대전에 참가한 바 있다. 경상남도미술대전 대상(1991), 부일미술 대상전 특선(1993)을 비롯해 다수 대회서 수상했으며 현재 충원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 대학 도서관이 지난 10월 29일 글로벌관 시청각실에서 지역민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김수영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김수영 작가의 북 콘서트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작가의 강연 및 청중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김수영 작가는 자기개발서인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를 시작으로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드림리시피’를 펼쳤다. 또한 감성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우리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2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 대학생 및 교직원들, 공공도서관 직원 등도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장성호 도서관장은 “북 콘서트를 통해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대학 간 지원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책 읽는 캠퍼스 문화 조성 및 인문학적 소양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북 콘서트는 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 함양과 지역대학 간 연계·공유를 통해 대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시민 위한 금오사이언스영화제

과학분야 초청강연, 포토월 등 부대행사도 열려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 문화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금오사이언스영화제’를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 5편(18일 인터스텔라, 19일 그레이비티, 20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1, 21일 마션, 22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을 상영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의 특성과 이미지를 반영한 공학(과학) 관련 영화를 통해 융합형 공학인 육성을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시민들을 위해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11월 21일에는 영화 속에 담긴 과학적 이론을 재조명하기 위한 초청강연이 열렸다. KBS 과학스페셜 및 tvN 어쩌다어른 등에 출현한 바 있는 문경수 과학팀 팀장이 초청돼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을 주제로 관객들과 다양한 과학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수영 작가 초청 북 콘서트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제 강연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 ‘문화 기부’ 호응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 등 지역 7개 대학 구성
“상호 협력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 7개 대학이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30일 대학 본관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철 총장과 이은직 경북보건대 총장, 정창주 구미대 총장, 윤오공대 총장, 윤옥현 김천대 총장, 한성숙 경운대 총장, 김종보 한국폴리텍대 구미캠퍼스 산학협력처장

대학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7개 대학은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지역 청소년 대상 멘토링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여 공동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배성길 경상북도 교육정책관, 이성칠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주희 김천시 행정복지국장이 참석해 경북 서부권 특성을 상호 공유하며 지속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서부권 대학들은 지난 6월, 각 대학 기획부서장이 모여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후 대학의 인프라 공유 방법 등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시행

학생 동아리 문화공연, 환경정화 활동 펼쳐

우리 대학을 비롯한 지역 7개 대학들로 구성된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연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1월 15일 구미역 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해 경북 보건대, 경운대, 구미대, 김천대, 대구예

술대, 한국폴리텍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80여 명은 대학 간 협업 및 지원공유를 통해 학생 동아리 문화 공연,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발전협의회는 이번 활동 이외에도 지역 청소년 대상 멘토링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반기 융합교육 활성화 위한 토론회

학부교육 혁신으로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추진



‘2019년 하반기 정책·현안 토론회’가 10월 10일 교내 산학협력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80여 명의 교내 구성원이 참석해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부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총 5명의 발제자가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과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김희준 교무처장은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교육부의 대학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김영학 교수(컴퓨터공학과)가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자기 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다전공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종환 교수(산업공학부)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김상희 교수(메디컬IT융합공학과)가 대경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HuStar 혁신대학 사업), 김태형 교수(컴퓨터공학과)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의 교육 혁신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회에는 참석자들이 융합교육의 방향성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대학 정책·현안 토론회는 대학 구성원이 모여 대학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열리고 있다.

2019 선주문화연구소 학술대회

‘구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 주제로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



‘2019 선주문화연구소 학술대회’가 11월 29일 교내 디지털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구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대학 선주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교양교직과정부 교수와 교육대학원이 주관했다.

2019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구미·선산 지역의 개신교 전래 양상(발표: 조현걸 금오공대 교수) △근원 김용준의 생애와 사상(발표: 박인호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야은선 생 문집 책판의 현황과 가치(발표: 김종건 대구한의대 교수) △『의열도』에 대하여(발표: 김석배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등 4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편 우리 대학 선주문화연구소는 구미·선산 및 인접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됐다. 선주지역의 선비 문화, 전통 유학, 민속, 국문학 및 언어학적 연구와 산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선주문화연구총서』를 비롯해 연구논문집 『선주논총』 20여 권을 발행해 왔다.

2019년 사랑의 김장나눔

대학 구성원과 양포동 새마을부녀회 참여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2019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2월 6일 교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생 및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구미시 양포동 새마을부녀회가 함께 참여해, 1,000여 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우리 대학은 나눔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대학에서 직접 준비한 재료로 김장을 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 준비한 김장 김치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삼성원, 양포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전해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내졌다.

김차병 양포동장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해 준 금오공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대학과 행정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학생처장은 “이번 김장 나눔은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동참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성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의 집 소개

♥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 후원의 집을 소개합니다.

거제복집	한식(복어)	공대상가	상가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49 054) 462-0096	대표자 : 김영자	경북 구미시 대학로 39 010-6603-3007	대표자 : 황태진
금오산성술불갈비	한식	금오산 한우마을	한식
경북 구미시 산업로 224 054) 457-7500	대표자 : 윤숙자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 7-5 054) 473-8688	대표자 : 김현숙
마모트	등산복	미쉐린타이어경북서비스센터	타이어
경북 구미시 공원로 372 054) 444-8890	대표자 : 유학종	경북 구미시 왕산로 198 054) 462-9012	대표자 : 김창일
베스트샵옥계점	LG기전	본도시락 옥계점	한식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24길 49 054) 474-8877	대표자 : 황원재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74 054) 474-4285	대표자 : 박희열
삼성특판	가전	성피부과	의료
경북 구미시 화신로 46 054) 464-4141	대표자 : 장세광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149(원평동) ST워 7-8층 054) 455-3393	대표자 : 성준제
신념종합상사	건축 자재	신동아 인쇄기획	제본 인쇄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5길 12-12 054) 475-0980	대표자 : 박충근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5-2 054) 464-3500	대표자 : 김진순
에코숨	제조	우리집 두마마 김치 삼겹살(인동점)	한식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경북산학융합본부 211호 054) 471-4491	대표자 : 석주윤	경북 구미시 인동중앙로 11길 26 054) 451-3433	대표자 : 손제원
치자치타이어	타이어	포항기자마회	일식(회)
경북 구미시 왕산로 220 054) 462-9012	대표자 : 김창일	경북 구미시 신시로 16길 97 054) 451-3433	대표자 : 이정태
한우명가 육립촌	한식	(주)성운투어	여행사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82 054) 474-3030	대표자 : 조정운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31길 6, 2층 054) 473-0473	대표자 : 정성윤
(주)해피투게더투어	여행사	※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 구미시 애온로 455 삼성빌딩 3층 010-8923-9863	대표자 : 김경남		

♥ 발전후원금 약정을 감사드립니다.

월 별	약정액
2019. 9. 1. ~ 2019. 11. 30.	235,622천원

 **약정하신 분**

• 발전기금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 별	모금액
2019. 9. 1. ~ 2019. 11. 30.	229,652천원

• **기탁하신 분**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약정서

♡ 기탁자에 대한 예우

순번	예우내용	10억원	5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50만원	10만원	예우신청 기준금액
1	흉상 또는 기념비	<input type="radio"/>										일시금
2	시설물명칭 부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일시금
3	장학기금 명칭 부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일시금
4	학교행사 초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누적금
5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일시금
6	명절선물	평생	평생	평생	5회	1회						누적금
7	언론홍보(보도) (기탁자 희망시)	<input type="radio"/>						일시금				
8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input type="radio"/>						누적금				
9	해오름연수원 (본인) 교직원 요금적용	평생	평생	20년	10년	2년	1년					누적금
10	기부 감사기념품 증정	<input type="radio"/>			일시금							
11	골프학습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본인)	100%	100%	100%/ 50%	100%/ 50%	100%/ 50%	100%/ 50%	50%	50%			누적금
		평생	평생	20년/평생 (택일)	10년/평생 (택일)	2년/10년 (택일)	1년/5년 (택일)	2년	1년			
12	차량 무료출입 등록(본인) / (1대)	평생	평생	평생	25년	5년	2년 6개월	1년	6개월			누적금
13	발전기금 달력 발송	평생	평생	평생								누적금
					10년	2년	1년	1년	1년	달력		일시금
14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100%	100%	100%	50%	30%	20%	10%	10%	10%		누적금
		평생	10년	5년	5년	3년	2년	2년	1년	6개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15	도서관 자료 대출/열람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누적금
16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본인 또는 지정 1인)	평생	평생	평생	평생	10년	5년	2년	1년	6개월	1개월	누적금

*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예우별로 본인이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며, 혜택 받은 예우금액은 기탁 총금액에서 소멸됨
- 누적금액 기준 예우 시 기탁한 총금액에서 기제공 예우금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약정금액은 제외)
- 기탁금액과 예우금액이 동일한 경우 아래 각 항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함
 - ① 골프학습관 이용료, ④ 평생교육원 교육비 할인, ⑥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1개 예우 선택)
 - ② ⑩ 차량 무료출입 등록, ⑯ 통학버스 이용권 제공 (1개 예우 선택)
 -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 강좌는 교육비 할인에서 제외됨
 - 상기 예우는 2011년 1월 이전 기탁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2014년 이전 교수의 연구간접경비는 적용 제외

기부자 정보

*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기부자(성호)명 <input type="checkbox"/> 악명희망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물수령 주 소 (우)	연락처	지택 H/P		
본교와의 관 계	구 분	세부 내용		
	<input type="checkbox"/> 동 문	<input type="checkbox"/> 학부(과) :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	<input type="checkbox"/> 최경과정(기)
	<input type="checkbox"/> 학 부 모	<input type="checkbox"/> 학생 성명 :	<input type="checkbox"/> 학부(과) :	
	<input type="checkbox"/> 교 직 원	<input type="checkbox"/> 부서 :		
<input type="checkbox"/> 기업/단체	<input type="checkbox"/> 회사명 :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		

약정 정보

기부금종류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학사랑기금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대학문화기금	<input type="checkbox"/> 도서기금
일반 기탁	<input type="checkbox"/> 시설확충기금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기금	<input type="checkbox"/> 연구기자재확충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복한 아침밥
	<input checked="" type="checkbox"/> 1대학원생 후원 미래 연구자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부금 용도	◆ 특정 학부(동아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하시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10%를 공제하여 대학전체를 위한 일반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기부금의 10%를 일반기금으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 동의 안함 <input type="checkbox"/>			
목적 기탁	<input type="checkbox"/> 자정장학기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부() / 대학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과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원 동아리/부서 :		
약정 금액	일금 ₩ 원	추천인	추천인 성명 :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방법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본관 601호)		
계좌 입금	<input type="checkbox"/> 납부예정일 : 년 월 일까지 납부(예정)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 농협 785-01-037878 <input type="checkbox"/>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		
CMS자동이체 (분할납부)	금오공과대학교가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CMS 자동이체를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거래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 까지 제3자(금융결제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인/서명)		
	예금주	(인/서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위와 같이 금오공과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을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약정자

(인/서명)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장 귀하

보내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3 9 1 7 7



발전기금 모금 안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오공과대학교의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 독지가,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누구든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탁구분

- 일반기탁 :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학에 일임
- 목적기탁 : 대학 내 특정학과(부서) 등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탁
 - 목적기탁 기부금의 10%는 일반기탁 기부금으로 공제(전환)됩니다.
 - CMS자동이체와 10만원 미만 일시금의 경우에는 공제(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대학사랑기금(대학에 일임)	대학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사용하도록 금오공과대학교에 용도 위임
장학기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도와내실 있는 교육 실현
학술연구기금	학술연구 지원, 국제 학술교류 지원, 저명교수 초청 지원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 실현
도서기금	국내·외 학술도서의 확충으로 교육의 질적인 향상 도모
시설확충기금	부족한 교육·연구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여건 개선
연구기자재기금	학문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신 기자재 구입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
기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발전기금 약정방법

-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kumoh.ac.kr) (fund.kumoh.ac.kr) “약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 팩스, 이메일, 우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 > “참여방법안내” > “약정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전화, 방문 약정
 - 전화상담 : 054-478-7080
 - 주소 : (39177) 구미시 대학로 61, 본관 601호 발전기금 사무국

발전기금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농협은행 785-01-037878](#) 광대발전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Tel 054-478-7080)
- CMS 자동이체 [발전기금 약정서 작성시 자동이체\(CMS\)를 신청하시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